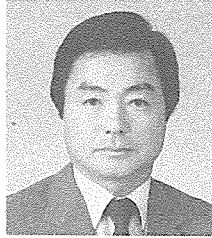


# '85會員建築設計作品展 受賞을 하고

## 大賞

### 이태원 테라스하우스



金 春 雄 / 상지필종합건축사사무소

삶!  
자연, 전통, 아름다움!  
고뇌, 번민, 밤샘, 순리!  
여러가지 단어들...

建築士로서 걸어가는 길이 길고 어려운 길이지만 가을의 밝은 빛이 빛나니!

大賞수상의 기쁨은 어찌 나 하나의 기쁨이 아니요. 모든 建築士가 차지하는 기쁨일 것이다. 이러한 영광의 빛을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과 본협회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작품을 구상하고 계획, 설계하여 시공이되고 탄생할 때까지 산모의 각고를 같이 지켜온 Client와 시공회사 여러분에게도 더불어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리며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

가슴을 두근거리며 새로운 Project에 몰두하고, 깊숙히 숨어있던 낯설지만은 않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며 하루하루의 고뇌속에 새로운 생명이 가꾸어져 나갈 때 더 나은 것을 키우려는 建築士의 마음은 항상 환희속에 두려움을 더해 간다. 마침내 태어난 새로운 생명과 마주설때 언제나 나를 당혹하게 만드는 것은 완전치 못함에 대한 미련이요(물론 언제나 완전한 것은 없을 진대)부끄럽도록 미흡함에 대한 나 자신의 아쉬움이니 생활자의 불편한점은 없을까 하는 것은 어인 일인지?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사용하는 생활자가 잘 가꾸어 키우고 다듬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딸을 시집보낸 아버지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유난히도 찌는듯한 작년여름밤

Project(이태원 테라스하우스)를 대할 때 어느 건축사나 마찬가지로 계획하고, 다듬고 하여 몰두, 고민을 하면서 Project성질상 조금 달랐던 接近方法에 접했다. 우선 시공회사와 Turn Key S-

ystem의 작업으로 급경사지의 惡條件 垆地에 대한 검계 및 자연현장 유지라는 문제를 설정하고, 수익성을 만족시키는 범위안에서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주거생활을 지향하고, 자연그대로의 여건을 포용하며 Duplex Type의 주거공간으로 계획안을 작성, 협의 그 안을 채택할 때 까지만 하여도 기대감에 바쁜 나날이었다. 그러나 실지로 실시설계단계에 들어가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둘 부딪쳐올 때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을 풀며 이러한 조건의 Project는 두번 다시 못할 것 같다(?)는 힘든 나날이었다. 드디어 완성되어 종이위의 한낱 스케치가 실물로 존재하며 부딪쳐올 때의 보람은 진행중의 고뇌가 더욱 먼 옛날의 추억으로 느껴지는 누군가가 말한 建築士의 즐거움이라.

영광스러운 受賞이 앞으로의 한발 정진하라는 모진매로 생각하고 建築士의 길이 더더욱 어려워지는 무거운 감을 갖게 된다.

자!

이제는 작품을 대할 때의 고민을 또 한걸음 한걸음 어떻게 풀어 갈 것인지.

## 最優秀賞



金 孝 一 원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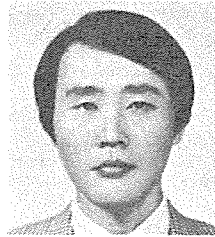
건축이 실존적 가치에 대한 진실된 체험의 소산이라는 것을 더욱 절감하며

建築이 實存空間으로 구현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장벽과 구축이 설계자앞에 가로 놓이게 마련이다. 특히나 계획과정에서부터 예산부족으로 단순한 평면적·기능처리나 실용적 목적만을 고집하는 건축주의 요구조건이 그 많은 구축영역중에서도 절대 우선할 때, 분명히 非人

## 優 秀 賞

間的인 建築空間은 물론, 非文化的인 環境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같이 경시되어 왔던 사실에 대한 새로운 반성이 우리사회 일각에서도 차츰 고조되어 가고 있고, 더구나 문화적 환경과 문화공간 확대의 여론과 움직임이 활발히 일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바로 이것은 진지한 삶을 염원하는 우리의 소망의 표현이며, 삶의 質을 높이는 필수요건인 동시에, 대중이 갈망하는 영원한 공동체 감정의 발로라고 본다. 따라서 이 Project에 대한 나의 관심은 内部空間의 質的 向上과 文化的인 空間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있었다. 말하자면 세련된 내부 공간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문화적인 정신을 갖도록 하며, 또한 심리적으로도 상호간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설계상의 기본개념은 평소에도 늘 생각해 왔던 것이며, 몇번 시도해본 실제의 경험도 있었던 바다. 즉, 거기에는 문화공간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公共性的 屋內 大空間에 신축성있는 空間擴大感과 그 方向性에 유동감을 불러 일으키게 하여 自由空間의 의미를 강력하게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이 Project는 건축주로부터 모든 신뢰를 받는 가운데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욱 충실할 수 있었다. 아쉬운 점은 한정된 예산때문에 설계자의 야망을 더욱 넓힐 수 없었다는 변명을 하고 싶지만 이 건물의 工費는 서독 카톨릭 미세례울기관의 원조기금에서 충당된 것인만큼 자제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곳 건축담당 건축가의 폭넓은 이해심과 요셉 플라츠 신부의 협조와 사랑으로 이 정도의 案이 성사되어 완성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때로는 設計者가 계획상의 주체적인 의사결정은 물론 建築主의 몫까지 다 해야 할때, 더 많은 부담과 고민에 빠지게 되지만, 신뢰를 받고 작업에 임하기 때문에 더욱 진실할 수 있었고 자기자신을 여러 측면에서 시험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건축이 실존적 가치에 대한 진실된 체험의 소산이라는 것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 그러나 이 건물이 완성되는 순간부터 나의 상념은 더욱 넓은 또다른 단계의 영역으로 내려 쫓고 날아가고 있었다.



張 順 鏞 삼성건축사사무소

### 흔들림없이 더욱 더 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한동의 建物이 이루어지기에는 수많은 참여인원이 소요된다. 각자의 말은 바 입장에서 修正案이 제시되거나 절충안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런 중에서 때로는 영향력이 큰, 참여인원이 아닌 사람의 熟考되지 않은 건축외적인 평가에 의한 변경이 생길 때에는, 특히 設計者로서는 의욕상실에 빠져들기 십상이다.

그런의미에서 본 작품의 설계시에 귀빈의 즉흥적인 발상안에 대하여 설계자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받아들인 建築主의 식견에 먼저 감사드린다.

단순히 참여해 보겠다는 의지로 作品展에 출품했다가 뜻밖의 영예를 얻게 됨에 감사함과 반가움을 만끽했으나, 돌이켜 생각하면 일반건축물이 아닌 전통양식에 의한 작품이라는 이색적인 면이 심사시에 적지않게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짐작도 들기에, 아직은 내놓고 자랑할 처지도 안되므로 앞으로 정진하라는 권면의 의미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다.

배부른 투정이 되겠지만, 잘못하면 앞으로는 傳統建築만 다룬다는 칭호를 얻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걱정이 되기도 한다. 좋게 생각하면 設計分野에서도 특정한 부문의 專門家라는 권위로 인정할 수 있겠지만, 유교적인 사고방식으로 뿌리깊게 자리잡은 오늘의 우리의 현실은 그것 밖에 할줄 모른다는 베타적인 경향도 도외시 할 수 없기에 그러하다.

건축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겠지만 특히 일반의 建築主나 官公署에서는 건축사들을 단적으로 특징 지워 생각하는 편리한 방법을 사용한다.

예컨대 아파트전문, 주택전문, 빌딩전문, 주택전문 등으로 구별하여 개개인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다양한 현대에는 分業化하는 기능적인 방법을 요구한다는 원리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권장할 방법이기는 하다. 그런데 특정한 부문을 잘한다는 평가보다는 그것외에는 잘못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로 사용될 때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위에서 들은 예들은 다같이 일반건축이라는 공통성이 있기에 큰 문제가 없겠으나 傳統建築專門이라는 호칭이 부여되면 일반건축의 설계의뢰를 망설이는 예를 적지않게 보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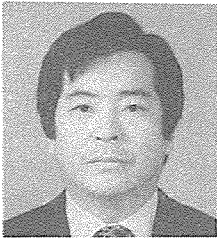
본인의 생각으로는 대학졸업후 일반의 設計事務所에서 7년이상(건축사법 개정으로 현행은 5년이상)의 수련후에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여 建築士資格을 취득한 후, 다시 문화재 분야의 수련을 2년이상 쌓은 후 文公部에서 시행하는 별도의 자격시험을 통과해서 문화재실측 설계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건축사에게 주어지는 전통건축밖에 모른다는 칭호는 너무 섭섭한 대접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대건축만 전념해서 업무를 수행해온 분들에게는 현대건축의 실무에 관해서 더 많은 경륜이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하지만, 한가지 자격을 더 추가했다고 해서 감점이 되는 현상은 불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現代建築에서 전통건축의 응용발전이라는 과제는 건축인이면 누구에게나 주어질 과제일 것이며 그것도 한 두 해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달리 해석하면 문화의 발전이란 면에서는 完成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하겠으나, 발전을 위한 노력없이 시간만 흘려서 저절로 발전될리 만무하므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기임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도 인정해야 하고 논리의 정립도 필요하고 건축에서의 진정한 전통성이 무엇인가 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受賞所感이라기 보다는 개인적인 불만을 토로한 것이 되어 부적절한 소감이 되었으나, 아무튼 본인으로서 審査委員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정진하여 나가는 뜻으로 선정해 주신 것이라 믿고, 아울러 개인적으로 기쁨이 될 명예를 마련해 주신 協會長任 이하 關係委員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獎 勵 賞

## 慶南大學校 本館



姜 泰 錫 / (株)韓建종합건축사사무소

### 건축작품은 나 자신만의 작업이 아니다.

하나의 建築物이 사회와 대중앞에 서 동하기까지는 최소한 建築主, 建築士, 그리고 技術者(施工者)라는 3자의 역할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建築主 즉, 그들이 개인, 사회, 또는 국가이든간에 그들의 必要欲과 目的이 분명해야 하며,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적정한 經濟的 能力과 建築에의 理解가 뒤따라야 한다. 때문에 그들은 훌륭한 建築士가 참여하여 설계하여 주기를 원하며 유능한 技術者를 선택하여 시공하고 싶어한다.

오늘날 建築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짓는다는 것 그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다. 후자의 말을 인용하면 “建築士들은 시간과 그들의 문화속에서 후세에 영원히 남겨지기 위한 藝術作品을 創造한다. 그러나 技術者들은 아주 훌륭하게 시공하지만, 오직 공간속에서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작업할 뿐이다”라고 했다.

금번 大韓建築士協會 創立20주년 기념 작품전을 통하여 경남대학교 본관이 심사위원님들에 의해서 과분한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설계자인 나 개인의 능력에 대한 평가라기 보다는 建築主, 施工者도 함께 그 대상이 되어 비평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가는 오직 그 결과에 대한 초기적인 단계라고 생각하고 싶다.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향후 그 건축물의 空間內에서 생활하고 있는 使用者들이나 管理者, 그리고 대중의 눈을 통한 새로운 차원에서의 평가는 아직도 궁금한 미지수가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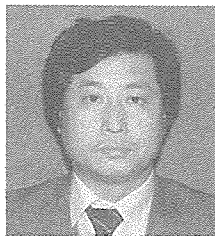
建築美에 대한 기호는 시대적 사조에 따라 변하며, 사회대중문화의 수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建築은 神의 계시에 의해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建築士 자신의 부단한 勞力과 經綸, 그리고 원숙한 인격을 통해서 성장되는 예술이라 할진대, 과연 건축의 신동이 존재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져 본다.

우리들 주변에서 흔히 대할 수 있는 대부분 건축주들의 공통적인 희망사항들은 가장 저렴한 설계비로, 그것도 그들이 지정한 최단시간내에, 완전하고 훌륭한 설계를 갖고 싶다고 의뢰 받았을 때, 우리가 建築士가 아닌 미술사, 또는 만화가의 재능을 겸비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워 당감스러움을 금치 못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우리 시대의 建築士들이 사회와 대중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귀감이 될 수 있는 훌륭한 建築士像을 정립하는 길은 반짝이는 재치, 적당한 방법으로 사회와 대중속에 융화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고도의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그들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철학을 명확히 전달하고, 설득할 수 있는 인내와 지혜를 갖추어야 겠다고 생각해 본다.

## 코리아씨티



李 龍 欽 / 일신건축사사무소

### 격려로 알고 보다 더 정진할 터...

제작년 '83 회원 작품전에서 '태화쇼핑'으로 將勵賞을 수상한 이후 뜻깊은 協會 創立 20周年 기념의 해에 地方의 작품을 또다시 將勵賞으로 채택해 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본 작품은 부산을 찾는 국내의 관광객을 위한 綜合慰樂施設로서 부산의 새로운 도심권으로 부상하고 있는 서면에 인접한 신흥 개발지역인 범일동에 소재하고 있다. 관광산업의 불모지라고 하는 부산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建築主의 의지에 부응하여 본 작품이 이루어졌다.

휴식과 오락의 場으로 충분히 배려한 평면과 어울릴 수 있는 격조높은 외관의 처리에 무척 고심했으며 여기에 시도된 SOPER GRAPHIC은 문양과 색상으로 발전하는 한국과 부산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메마른 부산의 거리에 예술성을 부여 시민 자신의 거리로 변모시키려는 의도의 일환이었다.

地方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이 의욕적인 창작활동을 부진하게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작품의 창작에 노력하여야 겠다고 생각한다.

이 賞이 이러한 의미에서 주어지는 격려로 알고, 보다 적극적인 작품 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뒤에서 수고해준 많은 사람들과 이 조그만 기쁨을 나누고 싶다.

## 평창동 J씨댁



徐 鎮 宇 / 건축사사무소 하나

### 소도구에도 은총이 나리다

오늘도 神의 섭리대로 살아가고 있으며 나 일개인의 力量으로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인식하는 마음은 얼마나 다행스러우나.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 “사랑, 자유, 의지, 투쟁” 이것이 나에게 도구가 되고 나 또한 도구가 되어 세상만사를 흘러가고 있다는 깨달음은 정말 머리를 숙이게 하여진다. 우리(건축주포함)들이 만들어낸 집이 賞을 받았다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建築主를 만나게 한 섭리가 나에게서는 더욱 幸運이다.

건축주의 소박하면서도 음악을 아끼고 사진을 좋아하는(자유의지)는 나의 발상을 자유스럽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과정이요 매끄러운 채찍질이었다.

조그마한 영광이지만 모두를 建築主에게 돌리고 미미한 능력이나마 더욱 끈질기고 열심히 도구가 되어야 겠다.